

# 강진 칠량 봉황지구 농경지 상습침수 해소

## 군, 국비 67억 들여 53ha 배수개선사업 추진

### 배수로 확장·복토 작업...영농활동에 큰 도움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어온 강진군 칠량 봉황지구 주민들의 시름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국비 67억원을 확보해 칠량 봉황지구 농경지 53ha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벗나무 꿀 먹는 다람쥐** 겨울잠에서 깬 다람쥐 한 마리가 10일 담양군 금성면 민재한 벗나무에 올라 꽃잎의 꿀을 빨아먹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배수문 설치, 배수로 확장정비 2.4km와 함께 저지대 농경지 25.7ha는 복토를 실시해 배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칠량 봉황지구 농경지가 상습 침수로부터 벗어나고, 배수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수가 잘되지 않는 저습 담의 지하수위를 낮춰 작물생육에 좋은 토양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경지정리가 완료됐으나 지방 2급 하천인 칠량천과 장계천이 홍수 때마다 범람해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됐고, 저지대에서는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곤 했다.

그동안 강진읍 강진군수와 황주흥 의원이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

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지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이번 사업추진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봉황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침수피해는 물론 소득 증대 및 재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송강 정철 발자취 따라 생생 가사체험 떠나세요

**담양군, 매일 셋째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과 담양문화원은 오는 19일부터 9월까지 매일 셋째 주 토요일마다 ‘송강 정철(1536~1593)의 자취를 따라가는 생생 가사(歌辭)체험’(이하 생생 가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회 참가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 신청 받는다.

‘생생 가사체험’은 ‘청춘·사랑·우정·스승의 노래, 사미인곡’이란 주제로 조선조 시성(詩聖)으로 손꼽히는 송강 정철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며 담양 가사문학에 대한 탐구와 전통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 산업화 시대에 인문정신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특히 송강 정철 선생의 창작공간이었던 송강정과 환벽당, 식영정 등을 중심으로 담양 가사문학

권 투어와 함께 ▲생태환경 체험 ▲정자 콘서트 ▲가사문화 누점 스토리텔링대회 ▲문화재 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문의(061-383-6066)

한편 ‘생생 문화재사업’은 2008년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 영암 ‘달뜨는 집’ 국비 6000만원 확보

**농림부 올 시범사업 선정**

영암군의 공동생활 주택인 ‘달뜨는 집’ 건립사업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생활시설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6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달뜨는 집’ 건립사업은 영암군이 지난 2006년부터 관내 11개 읍·면에 1개 동 기준 노인세대 등 4~6세대가 공동생활할 수 있는 무료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 등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아오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달뜨는 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생활 시설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입주 노인들

끼리 서로 율타리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보살피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뜨는 집’ 건립사업은 각종 재난 예방과 세대통합,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계도 동시에 지향함으로써 농식품부를 비롯한 안행부, 복지부,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 형태로 추진이 가능해 시너지 효과와 함께 전국 단위 협업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전북

### 군산 산북동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전북지역 처음**

문화재청은 10일 군산시 산북동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 화석 산지는 산북동 군장 산업단지 부근 넓은 평야지대에 낮은 구릉 형태를 띤 곳에서 지방공단 도로개설 공사 중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조사팀이 발견했다.

산북동 화석 산지는 전북에서는 최초로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함께 발견되고, 좁은 면적에 다양한 화석과 퇴적구조가 나타나는 등 학술·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드물게 대형 수각류(獸脚類) 공룡이 걸어난 발자국(보행렬) 화석이 발견되고, 국내 최대 크기인 조각류(鳥脚類=조식공룡) 공룡 발자국 화석이 같이 확인돼 백악기 당시 공룡의 행동 특성과 고생대 환경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학술자료를 제공한다.

문화재청과 군산시는 이번 지정 예고를 계기로 평화로부터 화석층이 훼손되는 일을 막는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남지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4호)와 화순군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천연기념물 제487호)를 비롯해 경남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534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1호) 등 총 9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친환경 상추 수확** 남원시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친환경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남원시 상추 재배 면적이 160ha 이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kwangju.co.kr

## 주말 나들이

봄의 향연(饗宴)이 화려하다. 벗꽃이 지는 듯 해도 철쭉이 뒤를 이어 피어나고 있다. 완도에서는 1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개막하고, 고흥에서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고흥 항공우주 축제’가 열린다. 또 담양과 장흥에서도 알찬 행사가 펼쳐진다.

### 추월산 벚꽃축제(12~13일·담양 추월산 관광지)

담양군 용면사무소(명장 김성기)와 용면청년회(회장 장종업) 주최로 열리는 벚꽃축제이다. 올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예년보다 10일 정도 꽃이 빨리 개화했지만 추월산 일원은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꽃이 늦게 피 축제기간에도 꽃을 볼 수 있다. 담양호에서 열린다. 부채만들기와 한지공예 체험은 자신만의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문의(061-380-2782)

### 담양 죽녹원 토요일 상설 공연(12일~11월·죽녹원)

12일 ‘김동언과 우도 농악(풍물)’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7월과 8월은 더위와 장마 등으로 공연이 중단된다.

죽향 문화체험마을내 정자와 우송당에서는 오는 19일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부채만들기와 서당체험, 가야금체험, 한지공예체험, 판소리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문태준과 함께... ‘문학의 섬’(12~13일·장흥 천관문화관)

장흥군 천관문화관은 12~13일 1박2일동안 제14기 문학의 섬 문예학교를 연다. 이번 초청 손님은 문태준(시인)이다. 경북 김천 출신인 문 시인은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와 ‘가재미’ 등 많은 시집을 펴냈다.

첫날인 12일에는 문화비평가 신호웅의 ‘문학토크’에 이어 조각가 강태희 씨가 문 시인의 손을 섬고로 뜨고, 화가 송대성 씨가 ‘내 마음의 색으로 읽는 문태준의 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3일에는 문태준 시인과 함께 소설가 고 이청준의 ‘겨울 광장’ 등의 배경인 장흥 남산공원으로 상상력 소품을 떠난다. 참가 희망자는 12일 까지 천관문화관(061-860-0457)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담양=정재근기자 jigg@

## 단신

###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 탐방로 개방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해빙기 탐방객 안전을 위해 일부 통제했던 구룡계곡 탐방로(지주대~구룡폭포)를 11일부터 개방한다.

구룡계곡 탐방로는 경사가 심하고 암반이 많아 해빙기 낙석 발생위험이 큰 지역으로, 탐방객 안전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일부 구간을 통제해 왔다.

공원사무소는 개방을 앞두고 급경사지 뜬 돌 제거, 탐방로 안전점등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063-630-8900)나 홈페이지(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정읍 산내면 ‘애향장’ 권오창·‘효열장’ 이경숙씨 선정

정읍시 산내면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강연천)는 지난 9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애향장 부문에 권오창(62)씨, 효열장 부문에 이경숙(66)씨를 선정했다.

권오창씨는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마을 노인회와 주민들 야유회 행사시 적극 참여하고 후원해 왔다.

공원사무소는 개방을 앞두고 급경사지 뜬 돌 제거, 탐방로 안전점등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063-630-8900)나 홈페이지(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순창군, 농촌주택·지붕개량 등 65동 정비 지원

순창군은 올해 농촌주택 개량 20동과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 빈집 정비 15동을 지원한다.

주택개량 사업은 주거정원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이율 2.7%다. 주거정원면적 100㎡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동안 감면받게 된다.

또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 10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2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군, 청소년 32명 수련관 운영위원 등 위촉

고창군은 지난 9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제6기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6기를 맞는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과 활동 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청소년 자치기구이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올해 청소년사업 설명, 위원회별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가 끝난 후 청소년 참여위원들은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펼쳤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화장품 클러스터 산업육성 MOU 체결



### 남원 친환경 화장품 집적화단지 첫 입주 기업 ‘DFK-코스메틱’

하반기 3개 회사 추가 입주

남원시가 조성한 친환경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관련 기업이 첫 입주했다. 남원시는 지난 9일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유)DFK-코스메틱(대표 김기욱)과 화장품 집적화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3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유)DFK-코스메틱은 로컬 면세점을 운영하는 ㈜DFK의 자회사로 한류 마케팅을 통해 미국과 중국,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과 친환경 DIY화장품을 연동한 산업관광 인프라(전시판매장·체험장)를 구축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구상을 갖고 있다.

시는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4개 업체와 빠른 시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2014~2015년)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중소화장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50억원으로 생산설비를 조성해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정

고창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최근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관리조례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와 관리·시행계획 수립, 관리위원회 설치, 실무추진단 구성,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설치, 국제협력 강화, 로고 개발과 활용, 주민참여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로고 활용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네스코는 지난해 8월 고창지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에 이어 5번째 등재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